

중년 탈모 여성의 헤어 증모술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최묘선¹, 장창곡^{2*}

¹동덕여자대학교 보건항강학과 학생, ²동덕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Effects of Middle-aged Hair Loss Women's Hair increased Techniques on Quality of Life

Myo-Sun Choi¹, Chang-Gok Chang^{2*}

¹Student, Dept. of Health and Promotion, Dongduk Women's Univ.

²Professor, Dept. of Health Science, Dongduk Women's Univ.

요약 탈모인들은 자신의 이미지 개선과 자신감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탈모를 위해 착용하는 가발에 대한 수요와 인식의 변화는 좋아지고 있으나 가발 자체의 탈모, 탈색, 엉킴 현상이 발생하고 부자연스러운 헤어 스타일링과 가발 착용에 드는 소요 시간 등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개선한 새로운 시술방법으로 헤어 증모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자신의 모발에 인모 가닥을 엮어 증모시키는 헤어 증모술을 통해 중년 여성 탈모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조사 대상자는 중년 탈모여성으로 증모 전, 후 삶의 질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헤어 증모술이 중년 탈모 여성의 경제적 만족도, 신체적 만족도, 정신적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헤어 증모술이 중년 탈모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증모 후 만족도와 재시술 의향도 높아 뷰티 시장의 블루오션인 헤어 증모술을 통해 고부가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 뷰티, 헤어미용, 탈모증, 여성 탈모, 헤어 증모술

Abstract The change in the demand and perception of wigs worn for hair loss is getting better, but hair extension is emerging as a new treatment method that improves as there are inconvenient areas such as hair loss, bleaching, and tangling of wigs themselves, and time spent on unnatural hair styling and wearing wi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at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female hair loss is positively affected by hair growth techniques that weave wool strands into their hair. Those surveyed were middle-aged women with hair loss and were analyzed by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before and after hair growth. The analysis showed that hair increased techniques affects the economic satisfaction, physical satisfaction, mental satisfaction and soci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with hair loss, indicating that hair increased techniques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middle-aged women with hair los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beauty industry will develop high value through hair increased techniques, a blue ocean in the beauty market.

Key Words : Beauty, Hair beauty, Hair loss, Female hair loss, Hair increased techniques

*Corresponding Author : Chang-Gok Chang(cgcchang@dongduk.ac.kr)

Received February 16, 2020

Revised March 14, 2020

Accepted April 20,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1. 서론

외모는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현대인들은 시간, 장소, 목적에 맞는 헤어 스타일링, 메이크업, 패션 스타일 등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특히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은 인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며, 개인에게 어울리는 알맞은 헤어 스타일링은 인상의 결점을 보완하고 자존감과 대인관계 형성에 자신감을 부여한다[2].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사회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현대인들은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각종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정신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라이프 스타일과 식습관 등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탈모이다[3]. 탈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탈모증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출산 및 다이어트, 스트레스 등으로 여성 탈모인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탈모증 발견 및 다양한 유형들이 여성 또는 20대, 30대의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젊은 연령대에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10대 청소년들에게도 관찰되고 있다[4].

탈모인들은 자신의 이미지 개선과 자신감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가발 착용, 탈모 관리 제품, 기기, 관리실 및 의료시술, 헤어 증모술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 중 탈모를 위해 착용하는 가발에 대한 수요와 인식의 변화는 좋아지고 있으나 가발 자체의 탈모, 탈색, 엉킴 현상이 발생하고[5] 부자연스러운 헤어 스타일링과 가발 착용에 드는 소요 시간 등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기법이 필요하다. 헤어 증모술은 가발의 불편함을 개선한 새로운 시술방법이다. 지금까지 가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헤어 증모술과 관련된 연구는 이영미(2019)의 원사를 이용한 증모술 기법에 관한 연구[6]와 신미주(2017)의 헤어 증모술에 관한 탐색적 연구[7]처럼 증모 과정과 방법을 제시한 연구만 있어 실제 탈모인을 대상으로 증모술이 적용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발을 보완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자신의 모발에 인모 가닥을 엮어 증모시키는 헤어 증모술을 통해 중년 여성 탈모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헤어미용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외적인 아름다움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

적인 측면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목적을 둔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탈모 상태를 알아본다.

둘째, 헤어 증모 전 삶의 질과 증모 2주일 이후 삶의 질을 알아본다.

셋째, 헤어 증모 후 만족도를 알아본다.

넷째, 증모 전과 후 삶의 질 및 만족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탈모인과 헤어 증모술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여성탈모

모발의 성장과 탈모는 모유두 세포와 모기질 세포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발의 성장주기는 성장기가 4년에서 6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모발의 성장이 점차 멈추는 퇴행기는 2주에서 3주간 나타난다. 성장이 완전히 멈춰 모낭과 모유두가 분리되는 휴지기가 2개월에서 3개월가량 나타나고 기존의 모발 탈락과 새로운 모발이 생성되는 발생기 주기를 거친다. 모발의 평균 수명은 여성의 경우 약 4년~6년, 남성의 경우 약 3년~5년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유두가 늘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낭과 연결되어 어느 정도 활동을 계속하다가 일시적으로 모낭과 떨어지면서 활동을 멈추고 또다시 모낭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성장과 탈모 사이클을 반복하기 때문이다[8].

정상적인 모발 성장주기 시 휴지기와 발생기 사이에 모발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약 3개월~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만일 휴지기가 이 기간보다 더욱 길어지게 되면 비정상적인 성장 주기로 모발은 이상 탈모 또는 휴지기 탈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휴지기의 모발은 대체적으로 전체 모발의 약 5%~15% 정도로 보통 하루에 탈모 되는 양은 전체 머리카락의 0.05%에서 0.1% 정도이며 머리카락 10만개 기준으로 40여개~80여개가 정상 탈모된다. 만약 그 이상의 탈모 시 이상 탈모증이라 할 수 있다[9].

공혜림(2014)의 중년 여성의 탈모관리 및 손상 모발 개선방안 고찰에 의하면 여성형 탈모의 원인을 견인성 탈모, 산후 탈모증, 피임약 복용, 폐경, 영양 장애성(다이어트, 단식 등) 탈모 등으로 분석하였다[10]. 여성형 탈모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형 탈모는 연모화 상태에서 주로 정수리 부분에서 탈모가 진행되고 헤어라인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면[11]. 탈모는 단계별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 탈모의 경우 Ludwig(1977)가 분류하여 Olsen(2001)이 정리한 국제적인 분류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12]. 여성 탈모 단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Female pattern hair loss

Ludwig Type		Content
Step I	Type I The initial stage	 <p>The hair of the two governments has thinned and the parting line is beginning to show</p>
		 <p>The hair of the two governments has thinned and the parting line is beginning to be clearly visible</p>
Step II	Type L Progress stage	 <p>As the hair of the two governments falls out, the parting line begins to widen</p>
		 <p>As the hair of the two governments falls out, the parting line begins to widen</p>
Step III	Type C Progress stage	 <p>Reducing the number of hair follicles caused by partial hair loss of the two governments and exposing the top of their heads</p>
		 <p>Partial hair loss by the two governments reduces the number of hair loss and decreases the density of hair on the top of the head, which makes the scalp exposed</p>
Step IV	Type O Terminal stage	 <p>Decreases in the number of hair follicles were evident, and complete hair loss</p>

2.2 헤어 증모술

뷰티산업은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다양한 미용 분야의 확대로 급성장을 보이며 가발산업 또한 미용학적 접근을 통해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추세이다. 가발은 전체 가발과 부분 가발로 나눠지며 가모, 인모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유현심(2010)의 탈모인들의 가발 착용과 관리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발 착용의 장점으로 가발 착용 후 자신의 모습과 생활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단점으로 가발 착용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편리성이 떨어져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13].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모(피스)를 이용한 헤어 증모술 기법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증모술은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은 미용인들이 일본 연수를 통해 기법을 전수받아 시작되었다. 탈모와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고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증모술 관련 시장은 미개척 분야이다[14].

헤어 증모술이란 두피에 남아 있는 모발에 증모 피스를 이용하여 모발의 양(가닥)을 늘려주는 기법으로 모발의 양을 늘리고 싶은 부위에 한 가닥의 모발을 잡아 두가닥에서 네가닥으로 만들어져 있는 증모 피스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말기 단계(Ludwig 제4단계)의 탈모증 또는 연모화로 너무 얇은 모발에는 시술이 불가하다.

증모술에 사용하는 피스는 주로 인모 제품의 증모 피스 제품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두피에서 느끼는 무게감이 적고 기존 모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또는 염색, 드라이 등이 가능하여 원하는 컬과 컬러 등 헤어스타일 연출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5]. 헤어 증모술 전, 후 모습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Before and after hair increased techniques



2.3 삶의 질

탈모와 삶의 질의 선행연구 결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상태 등 정신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승미(2016)의 탈모가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상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연구에 의하면 비 탈모군보다 탈모 집단이 연령별, 탈모 단계별, 탈모 지속시간에 따라 대인 관계 스트레스, 우울상태 및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삶의 질이란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 살아가는 방식, 살아있는 이유, 살아있는 현상, 생명, 존재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어떤 대상의 특성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은희(1996)는 삶의 질이란 삶의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행복함, 만족감이라 하였다[17].

장미희(2008)는 삶의 질이란 인간의 가치와 관련되는 개념이기에 인간의 삶에 다양한 측면에 대해 상이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떤 것이 질 높은 삶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접근이 가능하고 사회학자는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면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면에서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삶의 객관적, 물리적 측면을 넘어 주관적 느낌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여 삶의 질을 주관적, 심리적 안녕, 행복, 생활 만족도와 동의어로 보기로 하였다[18].

WHO(세계보건기구)는 삶의 질이란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독립적, 환경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영향 받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란 절대적인 개념 보다 개인의 복작합 특징의 실체를 규명하는 영역들의 주관적 만족감으로 개인의 가치관이나 관습, 생활패턴 등에 따라 변화 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헤어 증모술 시술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40~59세의 중년 탈모 여성으로 증모술 처치군과 비처치군 각각 50명을 선정하였다. 처치군은 탈모의 진행이 1~3단계(Ludwig 여성 탈모 분류) 사이로 남아 있는 모발에 증모술 시술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에서 제외한 경우는 4단계 이상 탈모자로 남아 있는 모발이 매우 얇거나 존재하지 않아 증모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와 모발의 길이가 3cm 미만인 경우이다.

자료수집은 서울지역 헤어살롱에서 2020년 01월 03일부터 02월 0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였으며 헤어살롱은 (사)대한가발협회 명부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협회의 헤어 증모술 워크숍에 참여하여 올바른 증모술 시술을 동일한 기법으로 하고 있는 살롱이다.

설문지는 헤어 증모술 시술 전 삶의 질 측정 후 헤어 증모술 시술 후 2주 뒤 시술 후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총 100부를 배부하여 94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9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2 측정도구

설문지는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인구 통계학적 특성 6 문항, 탈모상태 16개 문항, 삶의 질 22개 문항, 만족도 6 개 문항으로 총 50개의 측정문항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있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대응표본 t검정 등으로 처리하였다. 설문지 구성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Survey Configuration Content

Division	Contents	Preceding Research	Number of Question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occupation, income level	Research fellow	6
Hair loss condition	Shampoo cycle, type, timing, drying, method, Scalp Type, Hair Loss, Traction Hair Loss, Hair Softening, Hair Loss Symptoms, Time, Period, Condition, etc.	Lee Seung Mi (2016), Research fellow	16
Quality of life	Consciousness, Occupation, Economy, Body, Mental Area, People, Society, Leisure, Gossip, Autonomy, Self-Emotion	Kwon Bum (1997), Lee Seung Mi (2016)	22
Satisfaction (Target person)	Hair increased before and after hair growth, peripheral evaluation, style completion time, style decision, life span, frequency, duration, reoperation intention, etc.	Jang Mi Hee (2008), Research fellow	6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는 중년 탈모 여성의 헤어증모술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표본은 40~59세 탈모 여성 91명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40~44세가 31.9%, 45~49세는 36.3%, 50~54세가 20.9%, 55~59세는 11%로 조사되어 45~49세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결혼유무는 기혼이 73.6%, 미혼이 26.4%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5.5%, 고등학교 졸업이 38.5%, 대학교 졸업 이상이 56%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학생 2.2%, 전업주부 23.1%, 경영관리직 7.7%, 전문직 12.1%, 전문기술직 16.5%, 사무직 9.9%, 판매서비스직 6.6%, 교육직 8.8%, 자영업 12.1%, 기타 1.1%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29.7%,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6.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0.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4.3%, 400만원 이상이 18.7%로 나타났다.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Selection	Frequency	%
Gender	Female	91	100
Age	40~44 years old	29	31.9
	45~49 years old	33	36.3
	50~54 years old	19	20.9
	55~59 years old	10	11.0
Wedding status	Married	67	73.6
	Single	24	26.4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5	5.5
	High school graduate	35	38.5
	College graduate or higher	51	56.0
Job	Student	2	2.2
	Housewife	21	23.1
	Management position	7	7.7
	Professional career	11	12.1
	Technical profession	15	16.5
	Office job	9	9.9
	Sales service position	6	6.6
	Educational position	8	8.8
	Self-employment	11	12.1
Income level	Guitar	1	1.1
	Less than 1 million won	27	29.7
	More than 1 million won and less than 2 million won	15	16.5
	More than 2 million won to less than 3 million won	19	20.9
	More than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13	14.3
	More than 4 million won	17	18.7

4.2 응답자의 탈모상태

Table 5는 응답자의 탈모상태이다. 두피타입은 정상 23.1%, 건성 20.9%, 지성 42.9%, 민감성 8.8%, 복합성 4.4%로 조사되었고, 하루에 모발의 개수가 50개 이상 발견한 경우 59.3%, 발견하지 못한 경우 40.7%로 나타났다. 모발을 당겼을 때(견인) 탈모되는 모발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45.1%, 5개 미만인 경우는 54.9%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모발 연모화 여부는 예 79.1%, 아니오 20.9%로 나타났고, 자가 탈모 인지 여부는 예 65.9%, 아니오 34.1%로 조사되었다. 탈모 발견 시기는 20대 이전이 4.4%, 20대 11%, 30대 38.5%, 40대 39.6%, 50대 이후가 6.6%로 나타났으며, 탈모 후 어려움으로 자신감 상실 50.5%, 취직의 어려움 19.8%, 대인 기피증 13.2%, 이성교제의 어려움 5.5%, 기타 11%로 조사되었다. 탈모 상태(Ludwig)는 1단계 22%, 2단계 47.3%, 3단계 30.8%로 나타났으며, 탈모 치료 방법으로 미용실, 관리실 등의 업체 이용이 42.9%, 탈모 관련 제품 사용이 42.9%, 약 처방은 8.8%, 모발 이식은 1.1%, 기타 4.4%로 나타났고, 탈모 치료 기간은 1년 이하 34.1%, 2~3년 45.1%, 4~5년 13.2%, 6~7년 6.6%, 8년 이상이 1.1%로 조사되었다.

Table 5. Hair Loss Status of Respondents

Division	Selection	Frequency	%
Scalp Type	Normal	21	23.1
	Dry	19	20.9
	Oily	39	42.9
	Sensitivity	8	8.8
	Complexity	4	4.4
50 or More Hairs a Day	Yes	54	59.3
	No	37	40.7
5 or More Hairs During Towing	Yes	41	45.1
	No	50	54.9
Hair Softening	Yes	72	79.1
	No	19	20.9
Hair Loss Recognition	Yes	60	65.9
	No	31	34.1
When to Find Hair Loss	Before one's twenties	4	4.4
	20s	10	11.0
	30s	35	38.5
	40s	36	39.6
	After one's fifties	6	6.6

	Not more than a year	32	35.2
Hair Loss Duration	2~3 years	32	35.2
	4~5 years	18	19.8
	6~7 years	8	8.8
	More than 8 years	1	1.1
Post Hair Loss Difficulties	Loss of confidence	46	50.5
	Difficulty in getting a job	18	19.8
	Interpersonal avoidance	12	13.2
	Difficulty in dating	5	5.5
	Other	10	11.0
Hair Loss Condition (Ludwig)	Step 1	20	22.0
	Step 2	43	47.3
	Step 3	28	30.8
How to Treat Hair Loss	Use of the company	39	42.9
	Product use	39	42.9
	Prescription for medicine	8	8.8
	Hair transplantation	1	1.1
	Other	4	4.4
Tilmo Treatment Period	Not more than a year	31	34.1
	2~3 years	41	45.1
	4~5 years	12	13.2
	6~7 years	6	6.6
	More than 8 years	1	1.1

4.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Table 6은 삶의 질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이다. 요인 추출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실시 및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한 회전방법으로 직각회전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Factor Roading)은 .05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적용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형성을 살펴보기 위해 Bartlett의 구성형 검증과 변수들 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KMO (kaiser - Meyer - Olkin) 지수를 산출하였다.

삶의 질 문항에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질 24문항은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24문항 중 7번, 16번 문항은 요인적재치 .05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거한 후 최종 22문항이 적용되었다. KMO 지수는 .851로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임이 확인되었고 Bartlett 구성형 검증치는 $\chi^2=1908.911$, $p<.000$ 으로 유의하여 본 결과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4개의 요인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만족으로 명명하였다.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Measuring Tools

Factors	Ingredient					
	1	2	3	4	Comm onness	
Economic	Q.20	.809	.264	.081	.130	.784
	Q.12	.808	.187	.307	.046	.844
	Q.21	.798	.127	.245	.281	.660
	Q.22	.793	.235	.257	.208	.802
	Q.19	.752	.165	.279	.283	.760
	Q.5	.743	.444	-.055	.095	.717
	Q.13	.714	.174	.420	-.204	.782
	Q.24	.694	.159	.532	.111	.681
	Q.17	.674	-.030	-.209	.526	.707
	Q.18	.655	.307	-.043	.254	.755
Physical	Q.23	.604	.004	.518	.360	.784
	Q.2	.167	.854	.232	.180	.758
	Q.1	.208	.845	.065	.152	.704
	Q.4	.375	.754	.241	.187	.806
	Q.6	.075	.668	.455	-.243	.775
Mental	Q.3	.251	.667	-.017	.389	.590
	Q.15	.279	.212	.819	.114	.751
	Q.14	.333	.053	.767	-.037	.748
	Q.10	-.119	.208	.744	.309	.792
Social	Q.11	.267	.371	.557	.486	.793
	Q.8	.273	.311	.298	.723	.762
	Q.9	.346	.373	.253	.599	.803
	Eigenvalue	6.677	3.920	3.680	2.283	
Variance						10.378
Accumulation						75.273
Reliability						

KMO=.851, $\chi^2=1908.911$, $p<.000$

4.4 헤어 증모술 전, 후 삶의 질

헤어 증모술 시설 전과 후의 삶의 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헤어 증모술 치치군의 증모술 전 경제적 만족도는 증모술 전($M=2.57$, $SD=.78$)보다 증모술 후($M=2.38$, $SD=.59$)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만족도는 증모술 전($M=2.43$, $SD=.88$)과 증모술 후($M=2.67$, $SD=.68$)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정신적 만족도는 증모술 전($M=2.83$, $SD=.80$)보다 증모술 후($M=2.35$, $SD=.65$)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만족도는 증모술 전($M=2.68$, $SD=.92$)과 증모술 후($M=2.63$, $SD=.74$)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 증모술 치치군의 삶의 질 전, 후 측정값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헤어 증모술 치치군은 정신적 만족도만 유의하게 나타났고($**p<.01$), 경제적 만족도도 다소 높아졌으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사회적 만족도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Table 7. Quality of Life Paired t-test

Target person Quality of life		M	SD	Countermeasure vehicle		t
				M	SD	
Before : Economic Satisfaction	N=45	2.57	.78	.49	.38	8.75***
After : Economic Satisfaction	N=45	2.38	.59			
Before : Physical Satisfaction	N=45	2.43	.88	.44	.66	4.53***
After : Physical Satisfaction	N=45	2.67	.68			
Before : Mental Gratification	N=45	2.83	.80	.89	.51	11.58***
After : Mental Gratification	N=45	2.35	.65			
Before : Social Satisfaction	N=45	2.68	.92	.68	.52	8.79***
After : Social Satisfaction	N=45	2.63	.74			
Non Target person Quality of life		M	SD	Countermeasure vehicle		t
				M	SD	
Before : Economic Satisfaction	N=46	2.57	.78	.18	.85	1.51
After : Economic Satisfaction	N=46	2.38	.59			
Before : Physical Satisfaction	N=46	2.43	.88	-.23	.86	-1.84
After : Physical Satisfaction	N=46	2.67	.68			
Before : Mental Gratification	N=46	2.83	.80	.47	.99	3.24**
After : Mental Gratification	N=46	2.35	.65			
Before : Social Satisfaction	N=46	2.68	.92	.05	1.12	.32
After : Social Satisfaction	N=46	2.63	.74			

*p<.05, **p<.01, ***p<.001

4.5 헤어 증모술(처치군) 후 만족도

Table 8은 헤어 증모술(처치군)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헤어 증모술의 수명은 1개월 미만 15.6%, 2~3개 월 40%, 4~5개월 42.2%, 6~7개월 2.2%로 조사되었고, 증모술 횟수(시기)는 월에 1회가 11.1%, 2개월에 1회 26.7%, 3개월에 1회 42.2%, 4개월에 1회 20%로 나타났다. 증모술 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문항은 매우 만족 22.2%, 만족 55.6%, 보통 22.2%로 나타났으며, 증모술 후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35.6%, 만족 57.8%, 불만족 6.7%로 조사되었다. 증모술 후 헤어스타일의 만족도는 매우만족 33.3%, 만족 57.8%, 불만족 6.7%로 나타났고, 헤어 증모술을 재시술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은 매우 그렇다가 28.9%, 그렇다 60%, 보통이다 4.4%, 아니다가 6.7%로 조사되었다.

Table 8. Hair Increased Techniques Satisfaction

Division	Selection	Frequency	%
Life span	Less than 1 month	7	15.6
	2~3 months	18	40.0
	4~5 months	19	42.2
	6~7 months	1	2.2
Number of times	Once a month	5	11.1
	Once in 2 months	12	26.7
	Once in 3 months	19	42.2
	Once in 4 months	9	20.0
Self-satisfaction	Very good	10	22.2
	Satisfaction	25	55.6
	Usually	10	22.2

Rating people around	Very good	16	35.6
	Satisfaction	26	57.8
	Dissatisfaction	3	6.7
Hairstyle Satisfaction	Very good	15	33.3
	Satisfaction	26	57.8
	Usually	1	2.2
Retry	Dissatisfaction	3	6.7
	It really is	13	28.9
	Yes	27	60.0
	Is average	2	4.4
	No	3	6.7

5. 결 론

본 연구는 중년 탈모 여성의 헤어 증모술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헤어 증모술 시술이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외적인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측면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뷰티 시장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헤어 증모술 시술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중년 탈모 여성으로 증모술 처치군과 비처치군 각각 50명씩 선정하여 증모술 전 삶의 질을 측정하고 증모술 후 2주 뒤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헤어 증모술 처치군과 비처치군의 삶의 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헤어 증모술이 중년 탈모 여성의 경제적 만족도, 신체적 만족도, 정신

적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탈모인을 대상으로 한 패션가발을 이용한 연구들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박선애(2014)의 노인여성들의 가발착용 실태와 만족도 및 선호도[20]에 의하면 노인여성들의 가발착용이 외모나 스타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장성혁(2013)의 맞춤가발 착용 실태 및 착용 전, 후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 연구[21]에 의하면 맞춤가발 착용이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에 유의미한 결과로 탈모인들의 대인관계 위축이 가발을 착용함으로써 자신감과 외모에 대한 만족도로 해소됨이 나타났다.

본 연구로 헤어 증모술도 중년 탈모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헤어 증모술은 탈모인들의 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관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다.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헤어 디자인이 가능하여 탈모인에게 외적,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헤어 증모술을 받은 치치군은 대체로 증모술 만족도가 높고 재시술 의향도 높아 뷰티 시장의 블루오션인[22] 헤어 증모술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뷰티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헤어 증모술은 중년 탈모 여성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효율적인 증모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중년 탈모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양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폭넓은 지역과 대상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고 증모 산업의 성장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계속되길 바란다.

REFERENCES

- [1] S. M. Lee. (2016). *The Effects of Hair Loss on Interpersonal Stress, Depression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eoul.
- [2] W. B. Kim, D. E. Park & E. J. Park. (2013). Study of juvenile appearance, hair dy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awareness attitude and appearanc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Beauty art Society*, 7(1), 141-151.
- [3] D. H. Kim. (2011). *The influence of social impression form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hair loss on the interpersonal anxiety and state anxiet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Seoul.
- [4] K. H. Kim & K. Y. Kim. (1999). Hair loss study of aesthetic approa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5(1), 110-111.
- [5] H. K. Lee & J. S. Lee. (2014). A study fake hair using blue ocean technique hair thickening in beauty treatment industry. *Journal of beauty industry*, 5(1), 51-60.
- [6] Y. M. Lee. (2019). A Study of Hair Thickening Procedure Techniques Using Hair Fibers.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13(2), 01-16. DOI : 10.22649/JBAM.2019.13.2.1
- [7] M. J. Shin & C. S. Yoon. (2017). The Study on The Exploratory for the Hair Increased. *Journal of Beauty Industry*, 11(2), 99-114.
- [8] V. A. Randall, M. J. Thornton & K. Hamada. (1991). Androgen and the hair follicle : cultured human dermal papilla cell. as a model System. *Ann. NY Acad.*, 642, 355-375.
- [9] J. W. Hyeon. (2004). *A study on the cause of androgenetic alopecia and aprocess of gener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eoul.
- [10] H. L. Kong & H. Y. Choi. (2014).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Hair Loss and the Improvement of Hair Damage in Middle-Aged Women. *The Korean Beauty Management Society*, 2(2), 149-154.
- [11] E. R. Simpson & S. R. Daviss. (2001). Mini review: aromatase and the regulation of estrogen biosynthesis some new perspectives. Oxfordshire county : *Endocrine Society*, 142(11), 4589-4594.
- [12] E. A. Olsen. (2001). Female pattern hair loss. *J Am Acad Dermatol*, 45, S70-80.
- [13] H. S. Yoo. (2010). *A Study on Wig-wearing, Care Realities, and Recognition in People with Alopecia Hai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istance Learn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14] Y. M. Lee. (2019). A Study of Hair Thickening Procedure Techniques Using Hair Fibers.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13(2), 01-16. DOI : 10.22649/JBAM.2019.13.2.1
- [15] M. J. Shin & C. S. Yoon. (2017). The Study on The Exploratory for the Hair Increased. *Journal of Beauty Industry*, 11(2), 99-114.

- [16] S. M. Lee. (2016). *The Effects of Hair Loss on Interpersonal Stress, Depression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eoul.
- [17] E. H. Kim. (1996).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elf-Care Agen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in gastrointestinal cancer patients who had an oper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8] M. H. Jang. (2008). *The Influence of Wearing Wigs on the Quality of Life the Female Cancer Patients Who Started Losing Hair*.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sin University, Busan.
- [19] T. M. Burns et al. (2012). Quality of life and measures of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neuromuscular disorders. *Muscle&Nerve*, 46(1), 9-12.
- [20] S. A. Park. (2014). *A Study on Actual Condition,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Elderly Women with wearing Wig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Food and Drug Chung Ang University, Seoul.
- [21] S. H. Jang. (2013). *Use of Customized Wig &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Outward Appearance Before and After the Use of Custom wig*.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Seoul.
- [22] H. K. Lee. (2014). A Study of Fake Hair Using Blue Ocean Technique Hair Thickening in Beauty Treatment Industry. *Journal of Beauty Industry*, 5(1), 51-60.

최 묘 선(Myo-Sun Choi)

[정회원]



- 2014년 2월 : 건국대학교 항장학 석사
- 2019년 8월 : 동덕여자대학교 보건 항장학 (박사수료)
- 관심분야 : 마용, 항장, 보건, 통계 등
- E-Mail : 007cms@hanmail.net

장 창 곡 (Chang-Gok Chang)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 1991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
- 1988년 3월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보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 통계 등
- E-Mail : cgchang@dongduk.ac.kr